

#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창출\*

전 영 준\*\*

- I. 머리말
- II.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문화원형 이해
  - 1. 제주사 기반 문화콘텐츠 제작의 선결적 이해
  - 2.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 III.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과 인문학적 활용
  - 1.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 방향
  - 2. 제주 지역박물관 자료와 역사문화원형의 활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탐라 또는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의 정서를 포함하며, 지역민의 공감을 담아내는 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 그 원형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돌하르방’이나 ‘해녀’, ‘감귤’ 등의 문화 또는 특산물 정도가 알려졌고, 공항이나 항구에서 관련 상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의 1차적인 인식에 그쳐 왔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식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담아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던 점도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울러 본고는 2018년 10월 26일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탐라耽羅」와 연계한 공동학술대회 「탐라의 대외교류」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김고 보태어 작성되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in-history@hanmail.net

는 독특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제주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개발에 소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주문화는 우선적으로 신화를 포함여 역사시대 각각의 사실과 주제별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인문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그를 기반으로 생활문화는 개방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로 구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작용하는 문화산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문화연구를 첨단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사회변동과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오늘의 제주도가 지향하는 문화전통의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제어;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 제주문화, 문화개방성, 역사문화원형, 문화콘텐츠, 『탐라순력도』

## I. 머리말

문화유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되며 단절되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가 지닌 고유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여서 전승·축적·학습·공유의 특수성이 공동체 문화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생활을 반영하거나 지역민의 가치 체계로 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전승되는 문화유산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지역의 역사 및 역사적 인물, 특색 있는 지방의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축제를 통한 문화자치, 문화교육, 문화산업의 발전에까지 확장된다.<sup>2)</sup> 이것은 결국 문화를 활용하는 축제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sup>3)</sup>을 의미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해석하여 도출된 리소스들을 콘텐츠로 기획·개발하고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 구축에 해당할 것이다.<sup>4)</sup>

탐라 또는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의 정서를 포함하며, 지역민의 공감을 담아내는 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 그 원형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돌하르방’이나 ‘해녀’, ‘감귤’ 등의 문화 또는 특산물 정도가 알려졌고, 공항이나 항구·관광지 등에서 관련 상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의 1차적인 인식에 그쳐 왔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식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의 매력을 담아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던 점도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브랜

- 1)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2015, 163-190쪽.
- 2) 지역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김동진,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461-493쪽; 전영준, 「제주 줄다리기(照里戲)의 역사문화원형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261-283쪽).
- 3) 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의 기능은 ‘제의성’, ‘예술성’, ‘사회성(지역성)’, ‘유희성’, ‘일탈성’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과정과 풍요와 잉여의 분배를 통한 일탈적 요소를 통하여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4)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홍미디어, 2006, 74-75쪽.



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제주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 또는 브랜드의 개발에 소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들어 트레킹 성지로 인식되는 제주는 독특한 자연 환경에 접목된 이야기가 있는 인문 환경인 ‘집으로 가는 올레길’을 비롯하여, 흑룡만리로 표현되는 ‘제주밭담’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주인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월정리 해안 풍경이나 풍광 좋은 해안가에 자리 잡은 ‘○○커피’ 같은 인위적인 모습들도 SNS를 타고 함께 부각되기도 한다.’<sup>5)</sup> 그래서 마치 제주도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분별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탐라 또는 제주의 역사문화를 담아내고 있는지, 제주인의 정서와 비교적 잘 연결되는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6)</sup> 더 나아가 정작 우리가

- 
- 5) 「서귀포신문」 2017년 4월 16일 기사, ‘제주 “신다리” 처음 맛본 외국인 반응이? 솔동산 주민들, 신다리로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 찾기 나서’의 탐방 기사는 여름철 선밥을 활용하여 만드는 낮은 도수의 여름철 음료로 제주사회가 품어 온 절약정신과 나눔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문화콘텐츠는 제주올레를 찾아온 이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6) 「한라일보」 2019년 1월 7일자 8면, 「2차 제주문화 중·장기 계획 실천 ‘나 몰라라」의 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서 핵심과제 등 단계별 과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 기사이다. 2차 중장기 계획은 제주도가 문화정책의 주류화를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111건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로는 핵심과제 10건, 전략과제 19건, 일반과제 82건으로 나뉘며, 핵심과제는 중장기계획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으로 추진의지가 집중되는 2013~2016년 1단계에 완성한다고 제시했다. 이 중에서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1단계에 성사됐다. 그러나 1차 중장기 계획 기간(2003~2011년)의 추진 실적이 58.7%에 그쳤고 2차 중장기계획도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전략과제 및 일반과제까지 매년 추진 실적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잘 알고 있다고 제주의 상징인 ‘삼다(三多)’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과 고민들은 있었는지에 대한 반문을 통해 제주가 지향해야 할 제주문화콘텐츠의 구축과 브랜드화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 II.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문화원형 이해

### 1. 제주사 기반 문화콘텐츠 제작의 선결적 이해

제주문화는 우선적으로 신화를 포함하며 여기에 역사시대 각각의 사실과 주제별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그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 문화에는 개방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로 구현되어 왔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작용하는 문화산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도 문화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짚어내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민족과 시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도 여전히 부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원래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되었다. 본래의 뜻은 耕作이나 栽培였는데, 나중에는 ‘교양이나 예술’ 등의 뜻을 갖게 되

---

7)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문화 중장기계획의 과제에는 제주해녀, 5대 문화자원(탐라문화권, 해양유적·해양문화, 의식주문화, 근현대 문화유산, 제주스토리 자원)의 기록화와 콘텐츠화, 문화예술의 섬 조성, 10대 대표 문화공간 조성, 인디게임산업 육성, 풀뿌리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운영, 문화예술종합센터 구축, 메세나운동 확대 전개, 문화예술국 신설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모두 그동안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근거로 하여 현재에 적용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한라일보, 2019년 1월 7일자).

었다. 그래서 ‘문화인’은 ‘교양인’이나 ‘예술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sup>8)</sup> 또, 맥락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부여되는데 통상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광의의 문화는 ‘사회적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낸 모든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중 정신적인 산물을 물질문명과 구분하여 협의의 문화라고 정의한다. 가치나 신념, 사고방식이나 이론, 철학, 생활양식 등 무형의 측면은 문화이고, 기계나 건축물, 발명품 등의 물질적 산물은 문명이라고 한다.<sup>9)</sup>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Sir Edward Burnett Tylor(1832~1917)의 “지식·신앙·예술·도덕·관습·법률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문화는 삶의 사유 방식이고,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하지만 21세기에 직면하면서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문화가 고부가 가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산업이고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sup>10)</sup>

오늘날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확대된 시각으로 인한 문화산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산업을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창조, 생산, 상업화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정의는 문화산업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설

8) 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 2009, 14-15쪽.

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411-412쪽.

10)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16-17쪽.

11)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4쪽.

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화산업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내용’은 인류의 역사, 문학, 예술 등의 원천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며, 그러한 원천은 인류의 창조적 작업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우수한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각색하는 창작력과 연출력, 그리고 이들을 상품화하는 기획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에 달려 있다. 문화콘텐츠가 외형적으로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전달되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미지와 영상이 아닌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미지와 영상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적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문화산업과 구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광의의 의미로 문화산업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지식정보화를 직·간접적인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중은 정보화 추세가 진전됨으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으며,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그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핵심적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지식의 정보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면, 콘텐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과 함께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저에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그 원형질을 유지하고, 이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결합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으로서의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이 우선한다.<sup>12)</sup> 그리고 이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문화적 요소는 생활양식, 전통

12)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은 2001년 8월 17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

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3)</sup> 따라서 과거 제주사회의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상과 관점, 생활양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활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의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의 개발도 절실한 형편이다.<sup>14)</sup> 그러므로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원형과 활용 가능성의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문화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정부의 각종 지원은 이 분야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욕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 내면에 내재된 항상적 욕망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가 패턴의 변화는 물론 야외활동이 보장되는 체험형 소비를 통해 교육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

---

보통신공학),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공학), ST(Space Technology 우주기술공학),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공학)의 5T가 성장 산업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CT(Culture Technology)가 추가되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6T가 결정되었다. CT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술로, 콘텐츠의 기획·제작·가공·유통 및 소비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이공학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학, 시각디자인, 예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가 자본이 되는 시대의 도래는 현 단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전 세계인의 추구하는 문화향유, Human healing에 대한 고차원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13)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1, 28쪽.

14) 김시범,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172쪽.



는 경향 등은 모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결과이다.<sup>15)</sup>

가족	여가	체험	교육	직업	활동	취미
가족과의 유대 강화	휴식과 오락 선호	체험형 소비의 일반화	학습 욕구 기회 증가	둘 이상의 직업 보유	야외 활동 체험 활동	마니아 的 활동 추구

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문화연구를 첨단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사회변동과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특히 산업과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장은 결국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산업적·학문적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마케팅에 관한 산업과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을 의미한다.<sup>16)</sup>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예술(원천)+테크놀로지(콘텐츠로 전환)+콘텐츠(비즈니스 컨셉 적용)의 결합(융합)을 통해 문화상품(콘텐츠 혹은 서비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방송,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을 일컫고 있다.

〈분야별 연관 콘텐츠 구성〉<sup>17)</sup>

연관	제조 분야	주요 제조	부품소재의 3D 제작, 산업체 가상현실, 자동차 극장, 시뮬레이션 운전교육

15) 김영순 외, 앞의 책, 2011, 38쪽.

16)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시장 규모는 2010년에 53조 9천억 원이며, 2014년은 72조 6천억 원에 이르렀다.

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창조산업과 콘텐츠」, 2013.

콘텐츠		섬유 및 조명	스마트 의류, 패션 문화, 공공시설 건축 조명, 불꽃축제
		로봇 및 첨단	애완·도우미·교육로봇, 4D증강현실 콘텐츠
	※ 이 분야는 서비스 및 문화·미디어 분야와 상호 연계되어 지원되기도 한다.		
	서비스 분야	공공·법률·금융	실시간교통·문화정보SNS, 모의법정, 재테크프로그램
		보건 및 디자인	영상테라피, 원격진료, 지역상징 캐릭터, 스토리북, 지역특화상품 연계 관광
		교육 및 재난	e-러닝, 에듀테인먼트, 전자책, 재난방지
	문화·미디어 분야	예술 및 전통	미이어 아트, 디지로그 공연, 폐교의 박물관 전환,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지역 및 관광	한식, 한류스타 관광, 템플스테이, 지역테마 축제
		스포츠	태권도(심신수양), 스포츠게임(축구·야구), 스크린골프, 체험형 게임(닌텐도)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존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창의적 기획과 기술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다.<sup>18)</sup> 그런 이유로 문화산업의 재화인 콘텐츠상품의 작품화(창작·기획), 상품화(제작·표현), 서비스유통·마케팅) 등의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합 및 신규 시장 창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활용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 생산의 기반과 결과물				
지식기반	전통자원	창의성	문화적 ▶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18) 김영순 외, 앞의 책, 2011, 34쪽.

(정보, 데이터)	문화예술 생활양식 이야기	상상력 감성 스타일	요 소	공연, 음악, 에듀테인먼트, 모바일콘텐츠, 영화, 방송, 게임, 등
<b>문화콘텐츠의 분류</b>				
과정별	계획, 제작/가공, 유통, 소비, 컨버전스			
매체별	아케이드 게임, PC게임, CD, DVD, 비디오, 극장, 방송, 유 · 무선인터넷			
내용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모바일콘텐 츠, 영화, 방송, 게임, 예술(시각미술), 공예, 공연예술			
<b>문화 상품의 형태별 분류 · 문화콘텐츠 및 브랜드 구축</b>				
유형적	관광문화상품, 지역 특산물, 인쇄 · 영상매체, 문화시설, 문 화유적지			
무형적	산업기술, 문화적 이미지, 축제, 공연예술, 예절			

## 2.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에는 신화를 비롯하여 역사시대의 유구한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제주의 신화는 서구의 화려한 신화 못지않게 풍요롭고 체계적이다. 더욱이 이 신화들은 아직도 민간신앙의 현장에서 성서 구절처럼 읊어지며, 주민들의 신앙생활 근거로 작용한다.<sup>19)</sup> 즉, 제주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독자성 있는 문화이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올곧게 전승된 문화로서 제주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sup>20)</sup>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이고 고유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크게 의식주, 제주어, 자연 및 역사 설화, 민요, 무가, 세시풍속, 민간신앙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의식주에서도 의복은 대중적으로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풋감 물로 염색한 담갈색 무

19) 김동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역사문화학회, 2003, 316-327쪽.

20) 전영준, 앞의 글, 2017, 261-283쪽.

명옷을 노동복으로 착용함으로써 옷을 짓는 추가적인 노동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옷의 형태는 전통사회의 영향을 분명하게 따르고 있지만, 풋감 염색의 과정을 통하여 노동복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제주의 食文化 특징은 첫째 조리법이 단순하고 식품 손질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sup>21)</sup> 둘째, 분식(가루음식)과 입식(잡곡밥)이 혼재된 통합 식문화권이다.<sup>22)</sup> 셋째, 식재료의 다양성 및 계절 식재료의 적극적 이용이다.<sup>23)</sup> 넷째,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 나눔의 식문화이다.<sup>24)</sup> 다섯째, 구황 음식과 민간요법용 음식이 발달<sup>25)</sup>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옥 구조도 독특한 풍습으로 남아 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남이라도 양친 부모와 한집안에서 살지 않는父子別居이다. 이러한 풍습은 어디까지나 독립생계를 주로 한 경제 확립에 그 의미가 있다.<sup>26)</sup>

- 
- 21) 가볍게 끓이는 맑은 국, 냉국이나 물회 또는 찜 등의 생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는 조리 시에 인간의 손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식품 고유의 맛과 영양 성분의 손실을 줄이고 체내 이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지부의 국류는 대부분 진한 탕류이나 제주의 것은 맑은 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한식의 맛을 진한 양념 맛이라고 한다면, 제주의 맛은 재료의 싱싱한 자연의 맛이라 하겠다(오영주·허재옥, 「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東아시아食生活學會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2001. 9, 43-67쪽).
- 22) 미식 문화권인 본토는 입식의 쌀밥 문화가 주를 이루나, 제주는 조, 메밀, 콩 등의 잡곡 가루를 이용한 분식 문화권의 성격이 강하다. 범벅, 수제비, 개역, 칼국수, 발효전뽕(상애편), 잡곡떡, 고구마떡, 메밀가루 국 등은 분식 문화가 발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식들이다(오영주·허재옥, 위의 글, 2001. 9, 43-67쪽).
- 23) 제주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연중 따뜻하여 산과 들, 해변과 바다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재료의 다양성은 제주의 음식을 무려 470여 품수를 헤아리게 하였으며, 전주 지방 280품, 오키나와 150품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 24) 언제 누가 식사에 와도 국 한 그릇만 준비하면 함께 바로 먹을 수 있는 共同食의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특히 일상식이 아닌 의례식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일상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열량 섭취를 위한 음식이었지만, 의례식은 고기나 생선, 두부 등과 같이 특별한 음식으로 추렴이나 나눔을 통해 단백질 섭취의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25) 일상식의 주식은 거친 잡곡밥과 범벅 그리고 죽과 고구마였다. 범벅류와 죽류 그리고 국류가 발달한 것은 바로 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편,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인 제주어와 함께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것들은 모두 산문적인 이야기로 전승되고 話者와 聽者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일부 사실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으나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허구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보면 구비 문학과 그 문학을 사상적인 면에서 보면 철학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설화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풍토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 온 문학이며 철학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아울러 제주 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들 노동요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려조부터 계속된 외침, 조선시대의 과도한 진상과 부역, 출륙금지령 등과 같은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sup>28)</sup>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육지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해 온 관습이며 특히, ‘신구간’은 제주 문화를 특징짓는 생활양식이다. 세시풍속이 시간의 주기에 따라 치러지는 의례·민속놀이·사회적 행사·농사·어로·사냥·목축의 관행이라면, 생활공간에 따라 세시풍속은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제주도의 세시풍속에서는 신앙과 농사, 어로 행위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해마다 제사나 굿을 하여 풍농풍어를 비는 가장 본원적인 민속이 세시풍속이고, 아직도 신앙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

26) 이정립, 김봉애, 「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の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2002.

27)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9;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98-124쪽;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251-274쪽.

28) 김영돈, 「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 동악어문학회, 1983, 169-190쪽; 서영숙, 「제주 지역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 한국민요학회, 2013, 93-120쪽.

한데, 이들 역사문화자원을 선사문화·불교문화·관방문화·유교문화·해양교류·생활민속·민족운동·일제 군사시설·4·3사건·무형문화자원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복원과 보존의 문제를 제기<sup>29)</sup>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문화의 원형적 특질이 현재까지도 그 역사성을 잇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제주문화의 과거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의 부분이자 독자적인 면모를 지닌 고유성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류큐, 대만, 중국의 영파를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로 집약되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아울러 살아있는 신화 ‘본풀이’의 고장인 제주를 신화의 首都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해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담당하였던 문화허브(Culture-Hub)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 Ⅲ.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과 인문학적 활용

#### 1. 제주문화콘텐츠 창출 방향

오늘날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확대된 시각으로 인한 문화산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29) 김동전, 앞의 글, 2003, 316-327쪽.

30) 전영준, 앞의 글, 2015, 163-190쪽.

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 산업의 분류는 출판, 음반, 미술품 및 전통 공예품, 공연, 영화 비디오, 방송, 광고,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문화재 관련 사업, 캐릭터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문화산업기본법’,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분류법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르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산업을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창조, 생산, 상업화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산업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화산업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내용’은 인류의 역사·문학·예술 등의 원천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며, 그러한 원천은 인류의 창조적 작업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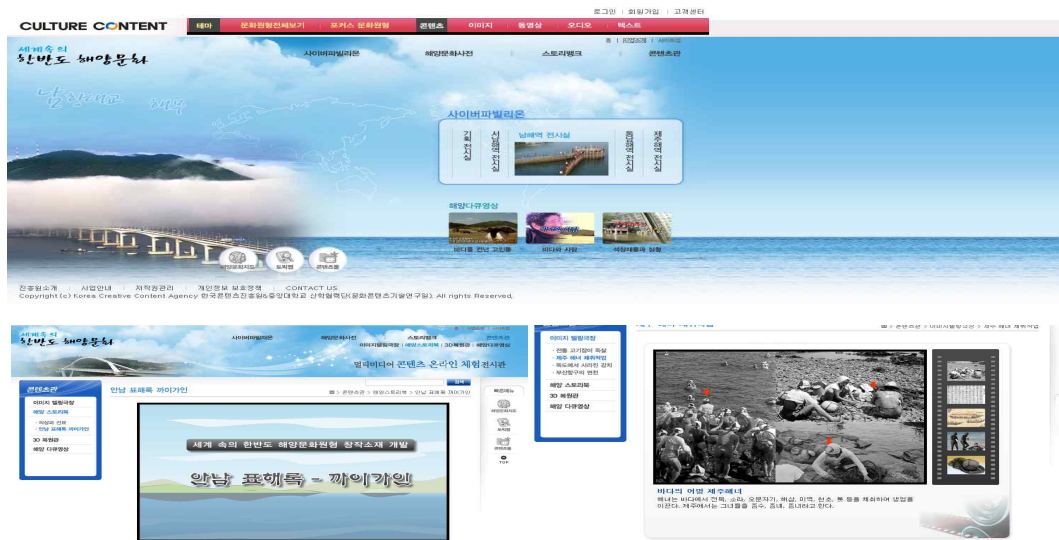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들과 연관하여 볼 때, 인문학은 역사문화원형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사실 및 기록들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역사학이나 역사학자라고 하면 두꺼운 안경 너머로 먼지 가득한 자료들을 뒤적이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역사학은 디지털기술이나 문화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보화시대의 역사학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잦은 요즘에는 역사학이 지닌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정의된 모습의 역사학자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화 사회는 비록 전자정보로 유통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일컫는 것이지만, ‘정보화의 기본적인 어휘가 갖는 의미는 역사학의 기본 성격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은 일찍부터 사료를 생산하였고 수집하였으며, 분류와 평가한 후 중국에는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인류역사상 가장 먼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던 것이 바로 역사학이었다. 『고려재조대장경』이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

기』, 『일성록』과 같은 전적들을 전자 자료로 재구성하여 정보화하였던 작업들을 볼 때에도 이미 역사학은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본래부터 역사학이 줄곧 작업해 오던 것이다. 더욱이 예전의 기록들은 대부분 동양에서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양의 경우에는 라틴어나 영어, 그리고 각기 자국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도 현대의 언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고대 및 중세 언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료를 발굴하여 모으고 그것을 해독하는 역사학의 능력은 ‘과거 사실’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흔히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과거의 사실 및 기록과는 관계없이, 의도하는 상상력이 극도로 발휘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명한 킬러콘텐츠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반지의 제왕>은 상상력 이전의 켈트신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거 기록 및 전승의 집대성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킬러콘텐츠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리 위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사료를 모아 정리하고 그것



〈박물관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원형과 콘텐츠(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31) 김영순·최현 외,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88-92쪽.



을 비교 검토하여 해석하는 역사학은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제주 지역박물관 자료와 역사문화원형의 활용

박물관이나 역사자료를 활용하는 제1차적 작업의 책임은 역사학자의 몫이지만, 이들의 연구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전문연구서와 대중서 및 역사문화콘텐츠가 활용된다. 특히 역사 속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원형은 역사학과 디지털 기술의 절묘한 융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원형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순수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는 구별되며,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도되는 사업이다.<sup>32)</sup> 문화원형 사업이 전부 역사학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전부가 역사학의 분류사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문화원형사업이 전개되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자문 및 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료 제공이나 원고 집필의 형태로 참가하였으며, ‘문화원형’의 정의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국문학,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계통의 연구자들이 대거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의 융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전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역사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인문학 연구자의 창의성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원형사업은 인문학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디자인, 문화산업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히 이 사업과 관련된 인문학자는 기술과 디자인, 영상과 내러

32)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민속이 잘 녹아있는 콘텐츠의 창출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티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문학 연구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를 훈련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 점에서 문화원형사업은 인문학의 외연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와 박물관 자료를 역사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작업 중 우리가 눈여겨 볼 내용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유물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테우, 원담 [독살], 즈녀의 작업 도구들이 지닌 어로 행위의 기능적 요소와 더불어 제주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재조명하여 근현대시기의 제주사회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문화콘텐츠로 재가공하고 시대별, 주제별 의미를 부여하여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해녀박물관에서 시도할만한 것으로 나전(螺鈿) 체험이 그것이다. 현재 해녀박물관은 ‘제주 역사와 즈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순환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녀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원용하고 있지만 계절적 제한이 뒤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복깍데기를 활용하는 나전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면 지역적 특색과 주제가 결합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과거 제주에서 전복이나 패각류 등을 모았던 사실에 기초하여 제주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그 부산물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전공예는 통영 지역이 대표적이긴 하나 제주 해녀 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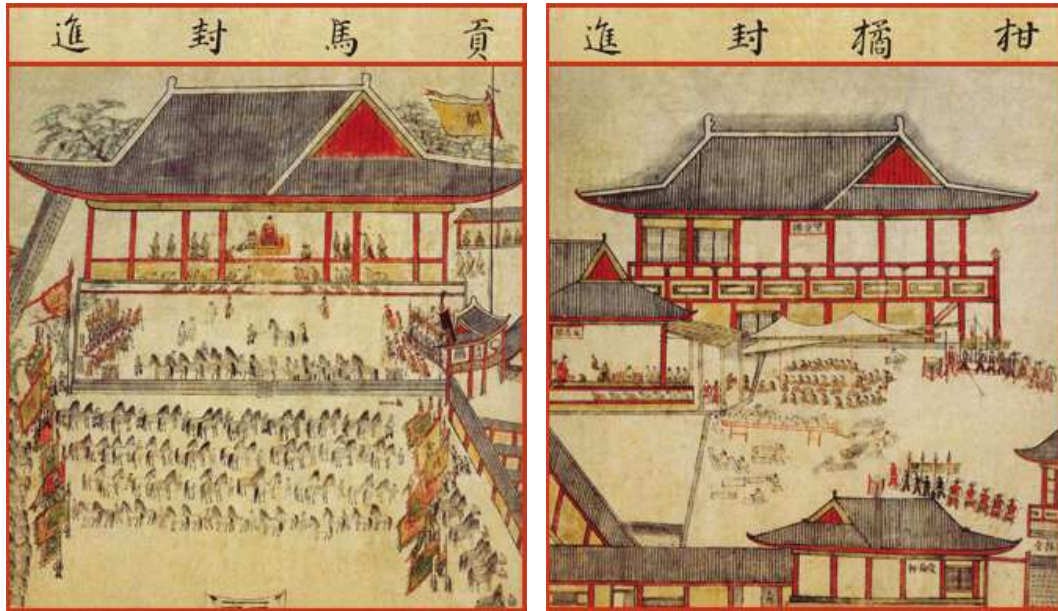
또 하나의 사례로 고려시대의 제주가 원 황실의 목마장이었던 사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국영목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 및 『탐라순력도』에 표현되는 목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기존의 ‘올레길’ 탐방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동안 목마 또는 목축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가시리의 조랑말박물관 정도이고, 렛츠-런 파크와 같은 기업 중심의 문화상이 보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점이다.



〈렛츠-런 파크 마축제(2018년, 15회)와 일도이동 고마로 축제(2018년, 5회)〉

이를 자세히 보면,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상징이었던 ‘마패’를 원용하는 ‘제주 마패 프로그램(가칭)’의 진행이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에 따라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각지에서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승마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주도를 한 바퀴 순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필 수가 우선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몇 군데의 장소를 특정하고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승용마는 순차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이끌 ‘말테우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많지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제주의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역사문화 자산을 보여줄 수 있고, 지역의 인문적 자산과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음식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적극 지원되는 재정적 기반도 승마 탐방의 기회를 통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 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렛츠-런 파크나 마문화사업단과 같은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간여가 요구되며, 행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고마로와 렛츠-런 파크에서 열리는 제주마 축제는 단순히 말을 타고 도로를 행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거나,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사라는 약점도 보인다.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및 「감골봉진」과 연결하여 고마로에서 관덕정까지 경로를 연장하고, 목관아에서 『탐라순력도』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sup>33)</sup>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좌), 감귤봉진(우) 장면 [자료제공; 제주시청]〉

물론 「공마봉진」에 실린 내용처럼 상당한 마필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문화재청이 권장하는 생생문화재의 의미에 꼭 맞는 문화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관아 주변의 상가를 비롯한 주변에서 말과 관련된 음식문화를 비롯하여 관련 상품을 보여줌으로써 전근대시기 제주인들의

33)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는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실시한 가을 순력과 제주도에서 치른 다양한 행사를 묘사한 기록화첩이다. 이듬해인 1703년 봄에 완성되었다. 그림 41면과 서문 2면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면은 순력 행사 장면을 담은 그림 28면, 평상시의 행사 장면을 담은 11면, 제주도와 주변 도서 지도인 「한라장축」, 후에 덧붙여진 「호연금서」 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이에 수묵담채로 그렸으며 화첩의 크기는 세로 56.9cm, 가로 36.4cm이다. 서문과 「호연금서」를 제외한 40면의 그림은 '제목-그림-화기'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붉은 선으로 구획된, 가로 30cm, 세로 30cm의 정사각형 공간 안에 그려졌다.

순력과는 무관한 행사 장면(11면)은 진상 및 국마 목장 관련 행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제주의 특산품인 귤과 말 진상(「공마봉진」, 「감귤봉진」), 군사훈련을 겸해 시행한 수렵(「교래대렵」)과 방사(「비양방록」), 당시 제주도에 자리한 국마 목장 점검(「산장구마」, 「우도점마」) 등이 있고, 특별 행사로는 제주도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별시를 기록한 「승보시사」와 신당과 사찰 혁파를 기록한 「건포배은」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clopedia/view/14XXE0079491>).

생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과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원도심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이 공감하고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은 제주도가 아니면 시도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sup>34)</sup>

이와 함께 제주에서는 ‘입춘굿’, ‘영등제’, ‘걸궁’<sup>35)</sup> 등의 축제 성격이 강한 연희 문화와 ‘신구간 이사풍속’이라는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축제라는 문화현장에서 구현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현장 문화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입춘을 전후한 시점의 제주 사회에서는 입춘굿과 영등굿 등이 연행되는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생산력의 확대를 기원하는 민속의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들불 축제’가 추가되어 이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연희적 성격이 강한 축제로 장르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입춘 즈음의 제주인들은 不淨을 멀리하고 禁畧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구전되는 속설들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입춘절의 금기는 여전히 제주인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신구간 이사풍속’은 문화이주민이 받아들이기엔 다소 생소하겠지만, 제주인들에게는 여전히 잘 전승되고 있는 생활문화이다. 따라서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생활문화도 탐라문화제에서 제주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제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생각해 볼만한 것으로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탐라

34) 목관아와 관덕정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관람객에게 보여주거나 예술문화 행사나 목관아 축제 정도로 그치는 지금의 상황은 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목을 끌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대중교통 통제와 같은 대규모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도심문화축제는 생생하면서도 인상 깊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5) 최근 들어서는 ‘걸궁’이 시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복원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제의 프로그램 구성이다. 탐라문화제의 시작은 1962년 5월 17·18일 진행된 제1회 제주예술제다. 이 예술제는 '5·16 기념'으로 출발한 순수한 예술분야 행사였으나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65년 한라문화제란 이름으로 출발, 2001년까지 이어졌다.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탐라문화제는 제주예술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1970년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됐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가 열린 1990년대는 독자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전통 민속의 재현과 복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화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지만, 한정된 주제로 해를 거듭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축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전승되었던 문화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sup>36)</sup>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보고서에서는 '제주도 대표축제의 필요조건'으로 ①제주도의 자연, 전통, 문화, 역사를 잘 표현하는 축제로서 타 지방 축제의 소재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②확실한 킬리콘텐츠를 가져야 하며 ③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④방문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⑤관광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⑥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⑦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즉, 비슷한 유형의 마을축제를 지양하고,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강화와 지역정체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sup>38)</sup>

36) 전영준, 앞의 글, 2017에서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제주 줄다리기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37)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0, 17-29쪽.

38) 김영순·최민성 외, 앞의 책, 2006, 46-47쪽에서 축제의 현대적 기능은 첫째 원초적 제의성 보존 기능, 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기능, 셋째 전통문화 보

제주의 경우 성산일출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상당수의 축제가 실시되지만, 대부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만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본래적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문화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의 시연이 바람직한데, 마을 단위로 열렸던 동제는 명맥만 유지되는 단점을 보인다.

이러한 축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획면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독창성 부족, 전문적인 축제기획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빈약 등 직접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잠재력을 체계적인 축제로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축제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부작용과 함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문화변용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축제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sup>39)</sup>

#### IV. 맺음말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오늘의 제주도가 지향하는 문화전통의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축제의 수를 헤아리면 상당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

존 기능 넷째, 경제 활성화 기능 다섯째, 관광적 기능이라는 참고할 만한 지적이 있다.

39)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역사문화자원에 접목시켜 상품화를 유지하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 개최와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축제가 지닌 고유성과 문화원형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겨진 채, 항상 지역의 재정 확보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의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식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고 하여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원형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오히려 윤색되거나 왜곡되어 전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도 없지 않다. ‘三多의 경우도 그렇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순간부터 현재까지 ‘바람, 돌, 여자라는 공식으로 전해져 왔다. 이상한 점은 ‘바람과 돌이 자연환경인데, 인문 요소인 ‘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문·도둑·거지가 없다는 ‘三無가 더 인문환경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제주사회를 살아오면서 선조들이 남긴 철학적 사유와 삶의 궤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다에 맞는 요소는 ‘비·바람·돌의 자연환경이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강우량과 관련한 서술에서도 제주도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린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다는 자연환경을 ‘삼무는 인문환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제주인들의 역사문화라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반영한 사회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후고를 기약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1967년 양중해 박사의 “삼다가 바람, 돌, 여자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탄식이 있었으며, 필자가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로는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1910년대부터 1920년 초까지의 일인 학자들이 쓴 서책에는 없다가 1928년의 서책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1930년대까지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근대시기의 문헌들을 더 추적하여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삼다=바람, 돌, 여자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40)</sup>

제주를 신화의 고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비로울지도 모른다. 그러

40) 최근 필자는 ‘삼다, ‘삼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의문으로 관련 내용과 기록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논고를 기약하겠다.



나 제주에 전해지는 신화 속에는 배려와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여 같은 수준으로 문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는 세대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만이 지닌 특성과 가치 때문에 제주를 여행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신화 속에 존재하는 배려와 포용은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이 빚어낸 문화적 개방성과 직접연관되어 있다. 물론 수탈과 압제라는 시대적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장하여 받아들이는 문화전통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시기 제주를 지탱해 왔던 역사문화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은 공유된 문화상을 향유하는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품어온 역사문화원형은 창의적인 제주문화콘텐츠로 창출되고 대표 브랜드로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영돈, 「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 동악어문학회, 1983.
- 김영순·최현 외,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1.
-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서영숙, 「제주 지역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 한국민요학회, 2013.
-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 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 2009.

2. 연구논문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 김동전,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김동전,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역사문화학회, 2003.
- 김시범,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오영주·허채옥, 「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2001. 9.
- 이정림·김봉애, 「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の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2002.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9.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2015.

전영준, 「제주 줄다리기[照里戲]의 역사문화원형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0.

「서귀포신문」 2017년 4월 16일 기사.

「한라일보」, 2019년 1월 7일자 기사.

ABSTRACT

Creation of Jeju historical culture prototype and  
cultural contents

Jeon, Young-jo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amla or Jeju include local emotions and have the function of content or brand that reflects the empathy of the local people. And this can grow into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that represent Jeju Island by showing the space that can be interpreted while preserving its protoplasm.

However, in the meantime, it has been known about the culture and specialties such as 'Dolhaleubang', 'Haenyeo', 'Citrus', it is also true that the airport has only been able to get a first-hand recognition of the goods at the airport or wharf. So, the fact that it showed limited limits to bring charm of the area which can be said that it is calmed down also disproves the existence of a unique brand that the local people can sympathize with. In other words, it can not be neglected that Jeju has been neglected in the development of killer content or brand.

Jeju culture firstly includes myths, and it has been formed in the process of cultural exchanges centered on the ocean by facts and themes of each historical period. It has been embodied as a cultural

---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element that is open to the living culture that includes all the wisdom human environments of the ancestors who wanted to overcome the barren natural environment and formed based on them. An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cultural industries where these cultures work,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y are steadily forming.

There is no doubt that culture is economically important, but its significance is not limited to the economic realm. Above all, 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is indispensable to human life and it is the basis for enriching life. Therefore, culture is a keyword to read social changes and future trends, Obvious.

It is necessary to awaken what is the context of the cultural tradition of today's Jeju-do, which shows the history of Tamla in 1000 years and the history of Jeju in 1000 years,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ave traditionally possessed that's the point.

Key-words: Tamla thousand years, Jeju thousand years, Jeju culture, Cultural openness, Historical culture prototype, cultural contents, 『Tamlasunlyeogdo(탐라순력도)』

논문투고일: 2018. 12. 29.

심사완료일: 2019. 02. 14.

게재확정일: 2019. 02. 16.